

# 자동차 내장재 공장 화학가스 폭발

충북 옥천에서 원료 반응시험 도중 사고 발생 ... 3명 부상 병원치료

옥천에 위치한 자동차 내장재 공장에서 화학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19일 오전 10시50분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자동차 내장재 공장에서 화학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료를 반응시험을 하던 도중 배합기를 여는 순간 갑자기 폭발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기계 안에 있던 화학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1>